



| | | | |
|--------|-------------|-------------------|-----------------|
| 주 제: | “가장 중요한 것” | “연중 제 16 주일 (다해)” | 2007 년 7 월 22 일 |
| 복음 묵상: | 루카 10,38-42 | 창세 18,1-10 | 콜로 1,24-28 |

주님께서는 그런 마르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랜 길을 걸어온 손님들에게 음식과 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에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구원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머물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실천은 걸치레가 되기 쉽고 자기만족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전주 공현식 신부)

1. 성가대 소식

- **음악제를 위한 2차 예비 모임결과**
 늦은 시간까지 각 파트의 지휘자님들, 각 파트장님들과 성가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음악회의 발표 곡목과 순서 및 그에 따른 시간배정등을 결정하고, 연습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가족 동정

- **축 환영** 김재호(임마누엘)형제님, 나용환(미카엘) 형제님, 그리고 박원하(프란체스카) 자매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쁘게 한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도우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으니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 최상진 엘리자벳 자매님 가족들과 함께한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셨습니다.
- 이흥진 데레사님 2 주간의 한국 여행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행중에 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7/9-7/24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출장 가셨습니다. 출장중 주님 함께 하시어 주어진 모든 일을 원만히 잘 처리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30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음악제가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음악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축하합니다.

김지만 토마스(7/3),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7/6), 전 난이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7/22).
7월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5. 휴가 예정자

본당 창립 30 주년 기념식까지 가능한대로 휴가를 9월 이후로 밀어 주시어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족은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 행주 요세피나: 7/29-8/5

최 주님 예로니모: 7/30-8/6

최 효원 도미니카: 7/30-8/6

+ 복음 [루가 10,25-37]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1분 명상

제목

쫓기듯이 살지 말 것

저자

송봉모

지금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물리쳐야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걱정과 분주함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물리치고 거듭 훈련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살고 싶어한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타처럼 살아야 한다.
마르타처럼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일해야 한다.
일거리는 도처에 널려 있다.

고요한 시간, 영적 시간을 가지려 하면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영혼의 바람을 꿀꺽 삼켜버린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기도하다가도 초인종 소리에 달려나가야 하고
찬미 시간을 가지려고 성가책을 펼치다가도 깜박 잊고 있었던 은행일 때문에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일에 쫓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후회스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도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바쁘게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 더 여유로워질 때 영혼의 바람을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말자.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